

친환경 냉매 전환을 통한 콜드체인산업 온실가스 감축 정책토론회



- 일시 : 2023년 9월 4일 10:00~12:10
- 장소 : 국회 도서관 B1 소회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이수진(비) 국회의원·기후변화센터·대한설비공학회
- 주관 : 칸kharn·콜드체인뉴스
-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참가등록 바로가기

2019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7억140만톤으로 이중 콜드체인에서 사용하는 HFCs 혼합냉매(R404A, R507A)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배출량의 약 7%(5,000만톤)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5년 HCFC냉매 감축이 시작된 이후 연간 약 30% 이상 급상승하고 있다.

키갈리개정서의 국내 시행을 위한 오존층보호법이 2022년 개정됐으며 키갈리개정서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도 의결돼 우리나라도 2024년부터 실질적인 HFCs 감축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콜드체인산업에서 냉매로 사용하는 HFCs냉매의 본격적인 감축규제 시행 전에 대체전환물질인 친환경냉매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어 관련 산업계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콜드체인산업계에서는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환경부 고시를 개정해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에 HFCs냉매를 포함하고 이를 친환경 냉매로 전환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국회포럼을 통해 관련 산·학·연·정이 모여 HFCs 감축에 대한 콜드체인산업의 우려를 직접 청취하고 합리적인 규제 및 지원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시 간	제 목	발 표 자
10:00~10:05	개회사	유영숙 이사장 기후변화센터
10:05~10:15	환영사	양이원영·이수진(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15~10:20	축사	정재동 회장 대한설비공학회
10:20~10:35	콜드체인산업 친환경냉매 냉동장치 보급 활성화 방안	권혁중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연구위원
10:35~10:50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고시 개정 필요성	최준영 대한설비공학회 차기회장
10:50~11:05	냉매관리 현황과 향후 개선방향	김영성 한국환경공단 과장
11:05~12:10	패널 토론 - 강규형 산업부 화학산업팀 팀장 - 김진식 환경부 기후전략과 과장 -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 권혁중 냉동공조산업협회 연구위원 - 오종택 전남대학교 냉동공조학과 교수 - 윤경미 대한설비공학회 콜드체인부문위원장 - 김병호 냉동냉장수협 지도상무	좌장 : 최준영 대한설비공학회 차기회장